

일본어 가능표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

- 조동사를 중심으로 -

양미석*

차례

- I. 머리말
- II. 가능표현의 의미 변화
- III. 가능표현의 형태 변화
- IV. 맺음말

I. 머리말

현대일본어의 가능표현의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5단동사의 가능동사화」 「~れる・~られる」 「~ことができる」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어의 역사적 변화를 보면 다른 일반 언어와 마찬가지로 어휘, 문법형식에 있어서 기존 형태나 형식이 어떤 요인에 의해 쇠퇴되어 소멸하게 되면,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형식이 생기게 되는 등 언어의 자율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어의 가능표현을 나타내는 형식, 그리고 의미의 분화도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언어 체계 속의 한 축을 유지하여 변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가능표현의 의미의 변화, 그리고 형태적 분화와 이에 따른 구문구조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능표현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의미의 변화와 형식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소묘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가능표현의 시대적 변천 과정의 대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일본어 가능표현이 어떤 변화의 노정을 밟아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대일본어 가능표현의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형식과 의미의 정확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가능표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점, 그리고 일본어 가능표현에 있어서의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 관한 대략적인 파악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현대어 기술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시대별 분석보다는 역사적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시대별 가능표현의 현상 파악 및 해명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다음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언어의 시대 변천 상황을 문화사, 정치사적 입장에서 구분으로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 관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상대, 중고, 중세, 근세, 근현대로 시대 구분을 하되, 동사의 활용형식이 2단에서 1단으로 통합되는 중세를 기점으로 하여 중세 이전을 고전어, 그 이후를 현대어로 구분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전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上代: 『古事記』, 『日本書紀』, 『萬葉集』, 『續日本紀』

中古: 『竹取物語』, 『土佐日記』, 『伊勢物語』, 『枕草子』, 『源氏物語』, 『更級日記』, 『今昔物語』

中世: 『平家物語』, 『徒然草』, 『狂言』

Ⅱ. 가능표현의 의미 변화

1. 고전어와 현대일본어의 가능 의미

가능의 의미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통상 인간(그 밖의 기타 유정물)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현대일본어의 가능표현은 긍정, 부정 모두 성립되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전어의 가능형식은 다음과 같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 형태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1) 得仕へ奉るべき官にはあらず(『續日本紀』天平寶字四年正月四日・宣命)

(섬길 수 있을 만한 관직은 아니다.)

- (2) 吾が心恒は虚よりも翔り行かむと念ひつるを、然るに今吾が足得歩まず、たぎたぎしく成りぬ(『古事記』中つ卷)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날으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지금 나의 발은 걸을 수 없어 절룩거리게 되었다)
- (3) 忘れがたく、くちをしきこと多かれど、え盡くさず。(『土佐日記』歸京)
(잊을 수가 없어, 여한이 되는 일이 많아도, 모두 다 기술했 수는 없다.)
- (4) 堀江越え遠き里まで送り來(け)る君が心は忘れまじし(『萬葉集』卷20)
(호리예를 건너 먼 곳까지 배웅해 준 그대의 마음은 잊지 못할 것이다.)
- (5) わが妻はいたく戀ひらし飲む水に影さへ見えて世に忘れず(『萬葉集』卷20・4, 322)
(나의 처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듯하다. 마시는 물 속에 처의 모습이 보여서, 도저히 (처를) 잊을 수 없구나.)
- (6) さりながらわごりよはよひ物をあつ(預)かつた、酒をの(飲)ふでゆるりとね(寢)ふが、身どもはね(寢)られぬ(『大藏虎明本 狂言』ひの酒)
(그런데 나는 중요한 물건을 맡았네. (자네는) 술을 마시고 푹 자겠지만, 나는 잘 수 없네.)

(1)은 「え+긍정문」 형식으로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2)(3)은 「え+부정문」 형식으로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え」의 어원은 동사 「得(ウ)」의 연용형에서 파생된 것으로 원래는 「~할 수 있다」와 같이 긍정 표현에서 출발했지만, 「え」가 부정과 호응하는 형식, 즉 부정의 표지로 고정화되면서 불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1)과 같이 「え」가 긍정표현으로 사용된 예는 상대시대에 한정되며, 중고이 후부터 「え」는 부정을 수반하여, 즉 뒤에 부정이 온다는 지표로서 기능하면서 불가능 형식을 나타내게 된다. (4)(5)(6)의 「ゆ・らゆ/る・رار」는 뒤에 부정 형식이 쓰여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이다. (2)~(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능표현은 전후에 부정이나 반어표현을 수반하며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냈다.

고전어에 있어서 가능표현은 조동사 「ゆ・らゆ/る・رار」가 동사 연용형에서 형태 분

화한 부사 「え」나 부정 형식과 공기하면서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조동사 「ゆ・らゆ/る・らる」가 가능 또는 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ゆ・らゆ」는 자연가능표현으로, 「る・らる」는 존경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전어에서는 가능표현의 경우, 부정표현, 즉 불가능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일본어에 있어서의 가능문은,

(7) 私にはちゃんと覺えられる/覺えられない。(作例)
(나는 잘 기억할 수 있다/기억할 수 없다.)

(8) 早く起きられる/起きられない。(作例)
(빨리 일어날 수 있다/일어날 수 없다.)

와 같이 「~할 수 있다·없다」의 가능, 불가능의 의미가 자유롭게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현대일본어의 가능의 의미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君なら絶対にやれる。(澁谷, 1993:p.2)
(너라면 꼭 할 수 있어.)

(10) この草は食べられない。(寺村, 1982:p.259)
(이 버섯은 먹을 수 없다.)

(11) 會員は、50萬円を限度として、當會から旅行費を借りることができる。(久野, 1983:p.153)
(회원은 50만엔을 한도로서 당 회로부터 여행비를 빌릴 수 있다.)

(12) 一時間後におれが死ぬということもありうる。(高橋, 1995:p.106)
(한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는 일도 있을 수 있다.)

(13) 電話を貸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日本語教育事典:p.198)
(전화를 빌릴 수 없겠습니까?)

(9)~(13)의 술어 부분은 모두 가능형식을 취하여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라고 해

석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9)는 격려, (10)은 평가, (11)은 규칙, (12)는 개연성, (13)의 의뢰 등 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고전어에서는 가능의 주체가 유정물(유생명사)에 한정되지만, 현대일본어에서는 무생물이 가능의 주체가 되는 예문도 찾아 볼 수 있다.

(14) この芝刈機が芝生を簡単に刈れますよ。(三原, 1994:p.137)

(이 잔디 깎는 기계가 잔디를 간단히 자를 수 있어요.)

(15) マッキントッシュには 百萬桁以上の複雑な數字が瞬時にして讀める。(三原, 1994:p.137)

(이 맥킨토시는 100만 단위 이상의 복잡한 숫자를 순식간에 읽을 수 있다.)

(16) このロボットは 主人を見分けられる。(作例)

(이 로봇트는 주인을 알아본다.)

(14)~(16)에서 가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무생물로서 현대어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한정되지만 무생물에도 능력의 여부를 부과하여, 점차 가능 주체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전어의 가능의 형식과 의미를 검토한 결과, 고전어에서는 「ゆ・らゆ」「る・らる」가 단독으로 쓰이는 예는 드물고, 주로 부정과 반어 형식을 수반하여 불가능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주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고전어의 가능표현은 다분히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가능의 뜻으로만 사용되어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어에서는 「れる・られる」등의 가능 형식이 긍정, 부정 모두 가능하고, 그 의미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가능의 의미까지 표현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어의 가능은 고전어에 비해 의미 분화의 결과 다양한 의미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고, 중세까지의 「る・らる」는 가능보다는 이중경어로서 많이 사용되었고, 중세 이후에 이르러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 구체화되고, 이후 현대 일본어에서는 형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능의 의미도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장에서는 가능표현에 있어서의 고전어와 현대어의 의미적 관련성 및 그 차이점을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마쓰시타(松下: 1928), 데라무라(寺村:1982), 시부야(澁谷:1993)를 중심으로 가능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쓰시타(松下: 1928, p.361)는 절대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가능의 의미를 2가지로 구별했다.

- | | |
|---------------------------|---------------------|
| (17) 道が悪くて <u>歩</u> かれない。 | (길이 험해서 갈 수 없다) |
| きまりが悪くて <u>來</u> られまい。 | (면목이 없어서 올 수 없을 거야) |
| (18) 脚氣で道が <u>歩</u> けない。 | (각기병으로 길을 걸을 수 없다) |
| 病氣では <u>來</u> れまい。 | (아파서는 올 수 없을 거야) |

즉, 동일한 가능문이라고 하더라도 (17)의 「れる·られる」의 가능문과 (18)의 「-eru」 가능문의 의미를 구별하여 전자를 <용이와 곤란>, 후자를 <가능과 불가능>의 의미로 구별했다.

한편, 데라무라(寺村:1982)는 가능표현을 「능동적 가능표현(active potential)」과 「수동적 가능표현(passive potential)」으로 나누고 각각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했다.

- (19) 君は泳げるか? (寺村, 1982:p.257) (자네는 헤엄칠 수 있는가?)
 (20) この茸は食べられない。(寺村, 1982:p.259) (이 버섯은 먹을 수 없다.)

(19)는 가능의 주체인 「君(자네)」가 수영을 할 수 있는가의 능력 여부에 초점이 놓여진 가능문이고, (20)은 가능 주체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서 「茸(버섯)」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구별하고, 전자를 「능동적 가능표현」 후자를 「수동적 가능표현」으로 분류했다.

시부야(澁谷:1993)는 가능의 의미를 5가지로 세분화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1] はずかしくて結局彼女に話しかけられなかった。(心情可能)

- (부끄러워서 결국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 [2] 日本選手團は實力の差が出てアメリカに勝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能力可能)
(일본선수단은 실력 차가 나서 미국을 이길 수 없었다.)
- [3] その日は體の調子が悪くて會議に出席できなかった。(內的條件可能)
(그 날은 아파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었다.)
- [4] その日は忙しくて結局會議に出席できなかった。(外的條件可能)
(그 날은 바빠서 결국 회의에 출석 할 수 없었다.)
- [5] あいつが結婚するなんて考えただけで笑ってしまった。(外的強制條件可能:自發)
(그 자가 결혼한다니 생각한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와 버렸다.) (p.29)

가능·불가능의 이유가 [1]은 「부끄러워서」라는 심정적인 것에, [2]는 「실력 차가 나서」라는 능력의 문제에, [3]은 가능 주체자의 「(몸이) 아파서」라는 내적인 조건에, [4]는 「바빠서」라는 가능 주체가 놓여진 상황적 조건에 있다. 또한 [5]는 생각한 것만으로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소위 자발(自然生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외적 강제조건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대어의 다양한 가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일본어 가능표현의 변천과정의 단면을 파악하는 데에 유익하며, 또한 현대일본어 가능문에 있어서의 격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Ⅲ. 가능표현의 형태 변화

상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어의 가능표현에는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부사 「え」, 조동사 「ゆ・らゆ/る・らる(れる・られる)」, 보조동사 「う(うる)」, 동사 「なる」, 「かなふ(かなう)」, 「できる」, 「가능동사」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능 형식은 시간축에 따라 소멸된 것도 있고, 형태의 변화를 이룬 것도 있고, 새로운 형태로 가능의 형식으로 정착된 것도 있고, 과도기적인 형태인 것도 있어, 다른 문법 형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대적 변천에 따른 형식의 다양함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현대어에서는 소멸된 가능표현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가능의 조동사「ゆ・らゆ/る・らる」가 어떠한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거치며 현대의「れる・られる」로 이행되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절에서는 소멸된 가능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2절에서는 조동사「ゆ・らゆ/る・らる」에 대해서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능표현 형식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가능표현의 형식

	가 능 형 식					
	부사	조 동 사			가능동사	う抜きことば
상 대	え	ましじ	べし	ゆ・らゆ		
중 고	え	まじ	べし	る・らる		
중 세	え	まい・まじい	べし	るる・らるる	○	
근세~현대		まい		れる・られる	○	○

상대에는 문법형식인「ゆ・らゆ」이외에도「あふ(下二)」, 「かぬ(下二)」, 「かたし(형용사)」 등과 같은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의 표지인「え」와, 가능의 조동사만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고찰 대상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소멸된 가능형식과 현대일본어에서도 여전히 가능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る(れる)・らる(られる)」를 분류해서 고찰해 나가기로 한다.

1. 소멸된 가능 형태

현대어에는 이미 소멸되었지만, 상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불)가능 표현의 형식으로 쓰인 형태로는「え」「え…부정(ず, まじ 등)」을 들 수 있다. 「え」가 가능표현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 어원이 동사「得(ウ)」의 연용형에서 기인한 것에서 추론된다. 그러므로「え」는 원래는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었고「え」뒤에 부정을 수반하여 불가능 표현으로도 사용된 결과, 상대에는 가능·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헌상 살펴보면 상당히 이른 시대에「え」는 이미 부정과 호응하는 부사로서 형태 변화하여 관용적인 표현형식의 길을 걷고, 그 결과 고정되어 불가능의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었다.

여기서는 조동사를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え」가 조동사와 호응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한「る・らる」의 가능형식의 변천과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え」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기로 한다.

1) 부사「え」

- (21) 得仕へ奉るべき官にはあらず(『續日本紀』天平寶字四年正月四日・宣命)(=1)
(섬길 수 있을 만한 관직은 아니다.)
- (22) 「吾が心恒は虚よりも翔り行かむと念ひつるを、然るに今吾が足得歩まず、たぎたぎしく成りぬ(『古事記』中つ卷)(=2)
(내 마음은 항상 하늘로부터 비상하려고 생각했거늘, 그러나 지금 나의 발은 걸을 수 없어, 절룩거리게 되었다)
- (23) 「あなや」と言ひけれど、神鳴る騒ぎにえ聞かざりけり。(『伊勢物語』第六段)
(「아이쿠!」하고 소리를 냈지만, 천둥이 울리는 소란에 들을 수 없었다.)
- (24) えとどむまじければ、たださし仰ぎて泣きをり。(『竹取物語』かぐや姫の昇天)
(붙잡을 수 없었으므로 그저 우러러 보고 울고 있다.)
- (25) 私ははづかしうござる程にまいるまひ(『大藏虎明本 狂言』二人袴)
(저는 부끄러워서 갈 수 없습니다.)
- (26) いとみそかにいひ入るるを、その人だにえ聞きつけで、「なにとか、なにとか」と耳をかたぶけ來るに、(『枕草子』第二百七十五段)
(이주 비밀스럽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조차 알아들을 수 없어서, 「뭐라구요, 뭐라구요」하며 귀기울이며 오는데,)

(21)은 부사「え」가 동사의 긍정과 호응한, 긍정의 기능으로 쓰인 예이다. 이에 대해 (22)~(26)은 모두 불가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22)(23)에서는 부사「え」가 조동사「ず」에, (24)(25)에서는 조동사「まじ(まい)」와 관계하고 있고, (26)에서는 부정의 접속조사와 관계하고 있는 예이다.

위와 같이 상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불)가능 표현에 다용되었던 「え」는 중세 이후 「る・らる」가 기능의 의미를 획득하면서부터 점차 소멸하게 되며, 근세 이후 간사이방언(關西方言)의 「よう…ん」의 형태로 잔존하게 된다.

2) 조동사 「べし」「まじ」

현대일본어에는 가능의 의미가 소멸되었지만 고전어에서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던 조동사 「べし」와 「まじ」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쓰시타(松下:1928)는 「べし」「まじ」를 가연태(可然態)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연태(可然態)는 작용이 발생해야 할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그러하다는 현실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리를 나타낸다.

(可然態は作用の發生すべき潜在力を表すものである。然々あるといふ現實に對する然々なければならぬといふ道理を表すものである。) p.363

그러나 「べし」「ま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형식으로 이를 가능형식으로 포함시키기 전에 과연 「べし」「まじ」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동시에 가능의 외연을 의미에 둘 것인가 아니면 형식에 둘 것인가 하는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べし」

「べし」는 추량·당연·의지·명령 이외에도 가능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들 의미가 각각 어느 한쪽의 의미로 쓰이는 예도 있지만, 가능인지 당연 등의 의미인지 또한 여러 개의 복합적인 의미로 쓰이는지 결정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예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미 판정에 있어서는 문중에서의 역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 「~할 수 있다」「~할 수 있을 것 같다」와 같이 가능의 의미로 쓰인 예를 제시한다.

(27) 水底の玉さへさやに見つべくも照る (『萬葉集』卷7・1082)

(물 속의 구슬조차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달빛이 비춘다.)

(28) 오るべき所のあらばこそは、おりて守の御ありさまをも見たてまつらめ。

(『今昔物語』)

(내려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려가서 國司의 사정도 살펴볼 수 있을텐데.)

(29) まことに、蚊のまつげの落つるをも聞きつけたまひつべうこそありし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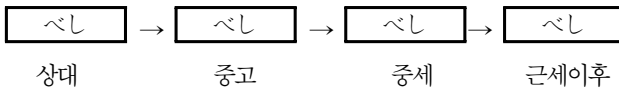
(『枕草子』第二百七十五段)

(정말 모기 눈썹이 떨어지는 것도 들으실 수 있을 만큼이었다.)

(30) たが教へを聞きて、人のなべて知るべうもあらぬことをば言ふぞなどのたまへば、(『枕草子』第三百七十七段)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서 사람이 무릇 알 수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 하셨으므로)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べし」는 상대부터 현대까지 형태의 변화는 없다.



한편 중세 이후 「る(るる)・らる(らるる)」에 의한 가능표현이 다용되면서, 「べし」에 의한 가능표현은 근세 이후에는 용법이 소멸하게 되었고, 현대일본어에서는 논리적이고 딱딱한 느낌의 문장이나 관용적인 표현에만 그 흔적이 남아 있다.

(2) 「ましじ(まし)」

다음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와 같이 불가능 표현을 나타내는 「ましじ」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おもしろき今城のうちは忘らゆましじ (『日本書紀』卷26)

(흥취 있었던 이마키의 일은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32) とく來と言ひやりたるに、今宵はえまゐるましとて返しおこせたるは、(『枕草子』第二十五段)

(빨리 오라고 전갈을 보냈는데, 오늘 밤은 갈 수 없다고 답을 보낸 것은)

(33) かなふましき由頻りに宣ひけれども (『平家物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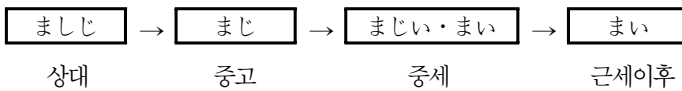
(이길 수 없는 까닭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34) (聲)うしろをみれば、尾がござるが、この分ではゆかれまらずまし(『大藏虎

明本 狂言』ひつきき聳)

(사위) 뒤를 보니 꼬리가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ましじ」는 시대적 형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31)의 「忘らゆましじ」는 상대, (32)의 「えまるるまじ」는 중고, (33)은 「まじ」의 연체형, (34)의 「ゆかれまらすまひ」는 중세에 나타난다. 중세말(室町)에는 중지·연체형에 「まい」「まじい」가 되고, 에도(江戸)이후는 「まい」로 정착하게 된다.



「まじ」는, 중세 이후 가능표현에 있어서 「る(るる)・らる(らるる)」에 의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근세 이후에는 가능의 의미가 소멸하게 된다. 현대일본어에서는 「まじい」의 후신인 「まい」가 「 부정추량」과 「부정의지」를 담당하고 있을 뿐 불가능의 의미는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1절에서는 현대일본어에서는 그 형식이 사라진 부사 「え」와, 가능의 의미가 소멸된 조동사 「べし」「ましじ(まじ)」에 대한 고찰을 행하였다.

다음은 「ゆ・らゆ」에 의한 가능이 「れる・られる」로 이행되는 과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2. 「ゆ・らゆ(る・らる)」의 형태적 변천과정

여기에서는 가능의 의미가 상대의 「ゆ・らゆ」에서 「れる・られる」가 이행되기까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 현대에 이르고 있는가를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1) 상대의 「ゆ・らゆ」

문헌상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가능의 조동사로서는 나라(奈良)시대의 「ゆ・らゆ」를 들 수 있다. 「ゆ・らゆ」는 동사의 미연형에 접속하여 수동·자발·가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실제 용례에 있어서는 자발의 의미로 쓰인 것이 대부분이고 가능의 용례는 그리 많지 않다.

(35) 堀江越え遠き里まで送り來る君が心は忘らゆましじ (『萬葉集』卷20)

(호리에를 건너 먼 곳까지 배웅해 준 그대의 마음은 잊지 못할 것이다.)

(36) 妹を思ひ眠(い)の寝らえぬに秋の野にさ男鹿鳴きつ妻思ひかねて(『萬葉集』
卷15・3678)

(아내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데, 가을 들뜬에 숫사슴도 울고 있네. 아내를 그리
워하며)

(37) わが妻はいたく戀ひらし飲む水に影さへ見えて世に忘れず(『萬葉集』卷20
・4,322)

(나의 처는 참으로 (니를) 사랑하는 듯하다. 마시는 물 속에 처의 모습이 보여서,
도저히 (처를) 잊을 수 없구나.)

(35)의 「忘らゆましじ」, (36)의 「寝らえぬ」는 「ゆ・らゆ」가 가능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편 (37)의 「忘れず」는 「る」가 가능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인데, 「る・رار」가 가능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중고 이후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37)의 예문은 주목할 만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상대의 「ゆ・らゆ」는 중고에 들어서는 그 모습을 감추게 되고, 「る・رار」가 「ゆ・らゆ」를 대신하게 된다. 그 요인으로는 다음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마다(濱田:1986)에 의하면 음운론적인 배경이 밀접하게 작용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ゆ」에서 「る」로 변화한 것은 아마도 순수하게 음운론적인 현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라행 자음 [r]과 야행 자음 [j]와의 조음위치가 근접하고, 연체형 「ゆる」 및 이연형 「ゆれ」에 있어서는 「ゆ」 뒤에 라행 음의 어미가 첨가되어, 그것이 역행동화를 일으켜서 「るる」「るれ」가 되고, 또 나아가서 다른 활용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ゆ」から「る」に變化したのは、恐らく、純粹に音韻論な現象と認むべきものであろうと思う。即ちラ行子音[r]とヤ行子音[j]との調音位置が本來極めて近いものである上に、連體形「ゆる」及び已然形「ゆれ」においては、下に更にラ行音の語尾が添加され、その爲逆行同化を起し「るる」「るれ」となり、それが更にその他の活用形にも及んだのではないかと思う。) p.200

즉, 하마다에 의하면 「ゆ・らゆ」가 「る・رار」로 변화된 것은 음운론적인 이유, 즉 라

행 자음 [r]은 치경음(齒莖音)이고 야행 자음 [j]은 경구개음(硬口蓋音)으로서 조음위치가 근접하여 발음상 편리한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문법 형태의 변화가 단순히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찬동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문제의 소재를 지적하는 선에서 끝내고, 아무튼 결과만을 보면 중고 이후 「ゆ・らゆ」가 일본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사실이다.

2) 중고의 「る・らる」

「る・らる」는 기존의 「ゆ・らゆ」가 수동·자발·가능을 나타낸 것 이외에도 존경의 의미도 나타내게 되었다. 중고시대의 「る・らる」는 존경표현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이 중경어에 많이 사용되었다. 가능표현으로서의 예는 상대의 「ゆ・らゆ」와 같이 부정과 반어표현에 한정되어 쓰였다.

(38) 夜は風のさわぎに寢られざりければ、久しう寢起きたるままに、母屋よりすこしゐざり出でたる

(밤에는 바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늦게 일어난 그대로 母屋에서 조금 앞은뱅이 걸음으로 나왔다)(『枕草子』 第二百段)

(39) 歩むともなく、とかくつくろひたれど、足の裏動かれず わびしければ、せん方なくて休み給ふ。(『源氏物語』 玉鬘)

(걷고 싶지도 않아 어쨌든 매만져 보지만, 발바닥을 움직일 수 없다.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쉬신다.)

(40) 湯水ものまれず(『竹取物語』)

(뜨거운 물도 마실 수 없다)

3) 중세의 「るる・らるる」

고전어와 현대어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중세에는 연체형이 종지형을 흡수한 결과 동일 형태로 되었고, 그 결과 「る・らる」도 「るる」「らるる」로 변화되었다. 또한 「る(る)・らる(らるる)」가 굳이 부정 형식이 수반되지 않고도 단독으로 기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긍정의 기능문이 출현하게 된다.

- (41) 冬はいかなる所にも住まる (『徒然草』)
(겨울은 어떤 곳에서도 살 수 있다.)
- (42) (男)某が坪の内に見事なくさびらが一本はへてござつたほどに、く(食)わる
くさびらかとぞんじて、取てみたれば、くわれさうなくさびらでもござなかつ
たに依て、(『大藏虎明本 狂言』くさびら)
(나의 정원에 멋진 버섯이 하나 피어서 먹을 수 있는 버섯인가 생각하고서 꺾어보
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버섯도 아니었으므로)
- (43) (祖父)きやうこつ(輕忽)や、何として此やうにしてゐられうぞ、もとのやうに
してかへせといへ(『大藏虎明本 狂言』こしいのり)
(할아버지)당치도 않다.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던 말이나, 원래대로 되돌리
고 해라.)

중세에는 (41)(42)(43)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る・رار」가 부정을 수반하지 않
고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능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즉, 「る・رار」는 상대에서 중고
중세에 이르기까지 가능보다는 존경표현이 대부분이었으나, 중세 이후에 비로소 가능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다. 시부야(澁谷: 1993)는 다음과 같이 중세 이후, 가
능의 의미가 「る・رار」형식에 의해 표현되는 빈도가 차차 높아짐을 지적하고 있다.

부사 エ는 전대와 마찬가지로 많이 이용되어졌지만, 조동사(ラ)ルル에 비해서 그 용례
수의 비율이 적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副詞エは前代と同じように盛んに用いられているが、助動詞(ラ)ルルに比してその
用例數の割合が低くなっていることに氣がつく) p.85

상대와 중고의 가능표현은 「ゆ・らゆ/る・رار」보다 「え+가능문」이 많았던 반면, 중
세에는 「え+가능문」보다 「る(るる)・رار(رارる)」에 의한 표현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る(るる)・رار(رارる)」형식이 본격적으로 가능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え+가능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え」의 소멸이라는 어법상의 변화, 「え+가능문」에 의한 불가능이 가
지고 있었던 역할상의 한계 등이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의미적 변화
에 따라 긍정과 부정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형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 요인에 의한 요구는 결국 「え가능문」의 소멸과 「る(るる)・らる(らるる)」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근세이후의 「れる・ら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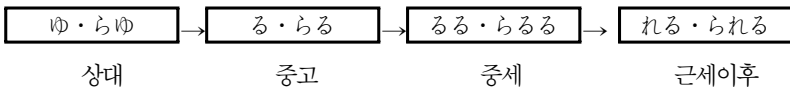
일본어에서 중세는 언어적 변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카리무스비(係結び)의 붕괴, 연체형과 종지형의 합일 등 문법적인 측면에만 한정시켜도 중세를 기점으로 근세어의 등장, 연이어 2단동사의 1단동사화라는 활용형식의 감소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동사활용 형식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동사 활용 형식의 변화

상대, 중고		근세~현대	
四段	思ふ, 歩く…	五段	思う, 歩く…
ラ變	あり, をり, はべり, いますがり		ある おる
ナ變	死ぬ, 往ぬ		死ぬ
下一段	蹴る		蹴る
上一段	着る, 似る, 煮る, 干る, 見る, 射る, 鑄る, 居る, 率る	上一段	着る, 似る, 似る…
上二段	過ぐ, 聞ゆ, 生く…		過ぎる, 聞える, 生きる…
下二段	受く, 食ふ, 得(う), 經(ふ)…	下一段	受ける, 食べる, 得る, 經る…
カ變	來(く)	カ變	來る
サ變	す	サ變	する

2단동사의 1단화에 의해 동사의 활용형식이 9종에서 5종로 통합되었고, 이에 촉발되어 조동사 「るる・らるる」도 「れる・られる」와 같은 형태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 형식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れる・られる」가 자발·수동·존경 이외에 기능의 의미까지 획득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동일 형식에 의한 기능 분담의 과중이라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 결과 가능표 현은 「れる・られる」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능 형식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5단동사에

있어서 하1단동사화에 의한 가능동사가 출현하게 된다. 즉, 「-eru」 형식에 의한 가능동사화가 보편화하게 된 것이다. 변화는 항상 중핵 부분에서 시작되고 점차 주변으로 확대 되는데, 가능동사화는 동사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5단동사에서 본격화되었고, 「れる・られる」에 의한 가능은 일부 1단동사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고,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1단동사의 경우도 소위 「らぬきことば」로 불리는 현상과 같이 가능동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가능표현의 형식과 의미에 대해서 개략적인 고찰을 행하였다. 가능표현은 시대에 따라서 생성·소멸·변화라는 변천과정을 더듬으며 현대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어의 「ゆ・らゆ/る・らる」는 반어와 부정을 수반하여 불가능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고, 중세 말을 전후로 해서 「る(るる)・らる(らるる)」에 긍정과 부정의 양용(兩用)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근세부터 가능표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근세 이후 「る(れる)・らる(られる)」는 수동, 자발, 존경의 의미에 기능의 의미까지 본격적으로 더하여지게 되고, 그 결과 「る・らる」형태에 과중한 의미부여를 초래하게 된 결과, 가능전용 의미의 「-eru」형태로 분화하는 기능의 독립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가능 형식과 의미에 대한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고전어와 현대일 본어에 있어서 가능표현의 상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본고에서 행한 검토를 근거로, 시대별 자료 속의 가능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參考文獻】

- 安田章, 『國語史の中世』, 三省堂, 1996.
 澁谷勝巳, 『日本語可能表現の諸相と發展』(『大阪大學文學部33—1』), 1993.
 鶴久・森山隆, 『萬葉集』, 櫻楓社, 1972.

梅原恭則, 『助動詞』, 有精堂, 1979.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1982.

松下大三郎, 『改撰標準日本文法』, 紀元社, 1928.

濱田敦, 『國語史の諸問題』, 和泉書院, 1986.

양미석, 『일본어 가능문의 격 표지에 관해서 -대상을 나타내는 격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교육학회, 1999.

이성규·양미석 『일본어 가능문의 격 표지에 관하여』,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0.

이성규·양미석 『現代日本語의 可能表現에 대해서』, 한국일본학회, 2001.

<사전류>

『國語大辭典』, 小學館, 1988.

『廣辭苑』, 岩波書店, 1955.

日本語における可能表現の歴史的變遷について

— 助動詞を中心として —

梁美錫

日本語の歴史的變遷を見ると、他の一般言語と同じように語彙、文法形式において既存の形態や形式がある要因によって、衰退、消滅し、その代わりとなる新たな形式が生まれる、という言語の自律的造成がなされてきている。日本語の可能表現を表す形式、そして意味の分化もこのような言語の特性を克明にしている、言語體系の中の一つの核を保ちながら今日まで變化してきている。

本稿では、可能表現がど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變遷し、現在に至ったのかを意味の變化と形式の多様化に焦點を當て、その歴史的な變化の過程を考察した。このような考察を通し、可能表現の通時的變遷過程を把握し、これを通して日本語の可能表現がどのような變化路程を歩んできたのかを振り返ってみた。